



國 內

全電子式 構內交換機(EPBX)

—金星通信서 開發에 成功—

全電子式 構內交換機(EPBX)가 최근 金星通信株式會社(代表 : 尹煜鉉)에 의해 國內最初로 開發되어 金星通信의 電子通信研究所의 起工式과 함께 그 첫선을 보였다.

PAM 方式 全電子私設構內 自動電話交換機인 이 開發品은 通話率이 종래의 機械式보다 5倍이 상 높아져 電話疏通이 훨씬 圓滑해질뿐 아니라 모듈化로 故障率이 크게 줄고 交換機의 規模가 기계식보다 小型化되어 生產費와 販賣價格이 떨어지는등 많은 利點을 안고 있다.

GS=100 EPBX로 불리는 이 交換機는 이밖에도 電子交換機의 50여 가지 獨特한 機能을 모두 갖출수 있기 때문에 通話者가 가는 곳의 電話番號를 다이얼해 놓으면 自動적으로 옮긴곳의 전화기에 벨이 울리며 자리를 잠시 떠났을 때 자기한테 걸려온 電話を 다른 사람의 中繼敘이 다른 자리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3명 이상이 동시에 서로 通話を 할수 있으므로 電話會談이 가능하며 사용빈도가 높은 전화번호의 6~7개 數字를 2~3개의 숫자로 줄여 다이얼할수 있으며 通話を 하고자 하는 相對者가 통화중일 때 자기의 受話器를 내려놓고 있으면 상대방의 통화가 끝난 다음 自動的으로 벨이 울리게 되어 있다.

自硬性鑄型製造技術 開發

三星重工業·KIST팀, 鐵鋼廢棄物 活用으로

鐵鋼工場에서 副產物로 나오는 廢棄物을 活用, 大型鑄型에 사용할 수 있는 自硬性 鑄型硬化劑製成物과 自硬性 鑄型材料에 의한 新로운 鑄型製造法이 開發되었다.

三星重工業과 韓國科學技術研究所(KIST) 技術陣에 의해 開發된 이 기술은 보통 砂型(sand mould)을 만들 때 쓰이는 모래와 接合材인 물유리(water glass)에 硬化促進劑인 알루미노·디칼슘·실리케이트($2\text{CaO} \cdot \text{Al}_2\text{O}_3 \cdot \text{SiO}_2$) 粉末을 添加,攪拌하여 急硬化시켜 鑄型을 만드는 方法이다.

研究陣은 國內 鐵鋼工場에서 나오는 磌鐵, 硅素鐵等 갖가지 廢棄物을 X-레이와 精密分析을 통해 알루미노·미칼슘·실리케이트($2\text{CaO} \cdot \text{Al}_2\text{O}_3 \cdot \text{SiO}_2$)의 複合化合物粉末을 合成해내는데 成功함으로써 年間 1百萬달러의 外貨를 節約할 수 있게 되었다.

國 外

機械部品등의 表面特性

—바렐研서 新技術研究—

바렐·프랑크푸르트研究所는 機械部品 또는 이에 類似한 材料의 表面特性을 改善하는 電氣化的 技術을 새로 연구하고 있다.

이 기술은 金屬被覆物과 擴散處理한 微細非金屬酸化物을 재료表面에서 共溶着시켜 硬度, 耐



摩耗性 및 其他表面特性을 개선하려는 것이다. 共溶着시키는 物質의 組合으로 이루어지는 特性은 여러 가지로서 내마모성, 耐蝕性, 高溫下의 安定性(耐酸性), 潤活特性(乾溫潤活性), 超電導特性등 여러 가지이다.

例를 들어 窒化보룬을 擴散處理하여 1次被覆物과 공용착시키면 乾質潤活필름이 만들어진다. 이 필름은 一般潤活그리스나 오일이면 分解해버리는 高溫에도 潤活性이 維持된다.

溶着被覆物은 필름狀, 固體粒狀 혹은 粉狀도 無妨하며 電氣溶着되는 필름狀의 것은 回轉엔진 기타 高次的耐蝕性, 내마모성이 필연한 것에도 效果的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. 이 방법을 사용하면 母體의 質이 조금 낮아도 표면특성이 개선되므로 經濟的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.

椰子實에서 알코올抽出

— 브라질國立研서 開發 —

브라질의 國立科學研究所는 이 나라의 名物인 椰子科에 屬하는 바바스에서 澱粉質 알코올이 抽出되었다고 研究結果를 발표하였다.

內容인즉 椰子油를 採取한 다음 버려지던 바바스의 中果皮部分에 含有되어 있는 高濃度의 전분을 알코올로 轉化한다는 것이다.

이 연구결과로서 年間 2億l의 알코올抽出이 可能하다는 推算이며 이에 따라 이미 椰子實에서 每時間 6t 정도의 중파피를 生產하는 工場을 建設 중에 있다.

이 밖에도 每日 3萬l의 전분질 알코올을 製造하는 新工場도 전설계획을 세웠으므로 이 계획이 예정대로 推進되면 2~3年後에는 전분질 알코올을

의 國內需要를 充足하고도 남을 體制를 갖추게 되리라는 展望이다.

현재 아마존江流域을 中心으로 이 나라의 北部에 繁殖하고 있는 바바스는 60億本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바바스에서 肥料, 家畜飼料가 되는 油粕, 澱粉製品, 그리고 木皮에서는 퍼치나마지는 木炭, 열매로는 야자유를 짜내는 등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多用性木質이다.

이번 연구에 따른 利用方法인 즉 3겹으로 된 바바스열매를 分離하여 그 맨가운데의 중파피를 추출하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의 전분을 알코올로 轉換하는 順序이다.

현재 브라질은 年間 數百萬의 전분질 알코올을 輸入하고 있다.

LNG 船用 新탱크材料

— 新日本製鐵等 3社서 共同研究 —

日本의 新日本製鐵, 三菱重工業, 川崎重工業 등 3社는 7月 15일에 LNG 船用 탱크材料로 쓰여지고 있는 알루미늄, 9% 니켈鋼(9%·Ni)에 代替할 새 탱크재료의 共同開發에 나섰다.

신일본제철이 개발한 5.5% 니켈강(5.5% Ni)을 素材로 그 組成등을 바꿈으로써 低コスト船用 탱크材料가 될 수 있음을前提로 한 것이며 이 연구가 성공하면 超低溫用탱크材料의 日本內供給體制가 確立될 뿐아니라 國際的으로도 關心을 갖게 되리라는 期待를 걸고 있다.

3社共同開發體인 KLMN 委員會가 主動이 된 이번 연구로서 來年 3月에는 새 재료가 선을 보이게 될 듯하며 國제적으로 뛰어지고 있는 造船技術의 發展에 안간힘을 기우리는 象徵이기도 하다.